

제315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정치쇄신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13년5월15일(수)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정치쇄신과제(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의 건

심사된 안건

- 1. 정치쇄신과제(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의 건 1

(13시41분 개의)

○위원장 김진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5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치쇄신과제(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의 건

○위원장 김진표 의사일정 제1항 정치쇄신과제(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정치쇄신과제와 국회쇄신과제를 심사하기 위해서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박민식 간사님이 소위원장으로서 계시는 정치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과제에 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동 의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 중 하나인 만큼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한 결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과제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청회는 5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지금 회

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곳 회의실 제319호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진술인은 양당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에 있는 전문가 4인을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공청회 계획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우 위원 제가.....

○위원장 김진표 유승우 위원님.

○유승우 위원 지금 교섭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된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여야 공동으로 일주일간 외국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다음 주로 일주일간 연기를 하면 안 될까요? 매우 아쉬운데요 다른 위원님들 좀 양해가 되시면, 저희들도 이것 공무로 나가는 건데.....

○위원장 김진표 양당 간사님들 간에 그동안 일정을 갖고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들 입장에서 외국 일정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가장 참석이 많은 날짜 이것을 고려한 거고요, 그다음에 진술인들의 일정 이런 것을 고려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다른 위원들도 많이 비시나요?

○함진규 위원 저도 공청회 때문에, 지금 2시에 공청회를 개최해 놔서요 말씀드리고 가려고 그럼

니다.

지금 유승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월 초에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6월 임시국회 열릴 때 그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논의되는 게 교육감선거 제도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선거만 포함되는지……

○**김태년 위원** 교육감선거는 필요하면 다른 주제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함께 다루기는……

○**위원장 김진표** 지금 교육감선거에 관해서는 제가 교육위원회 쪽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것은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교육위원회에서 하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결정해서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잠시 양당 간사님하고 제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

존경하는 유승우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5월이 임시국회가 없는 달이지만 우리 특위는 하자 하는 취지에서 공청회 일정을 잡았는데 일정을 5월 중에 잡으려다 보니까 5월 중에는 5월 22일이 특위 위원들의 출석 인원수가 가장 많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날로 잡았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외국 일정 조정이 가능하시면 조정을 해 주시면……

○**김태년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진술인들을 이날짜에 맞춰서 섭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날짜를 바꾸게 되면 진술인들 일정하고도 다시 또 다 맞춰 봐야 되는 게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이렇게 하시지요. 22일로 하되 저희가 가능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월요일까지는 진술인 원고를 받아 가지고 메일로 위원님들께 다 보내 드리고 위원님들이 참석 못하신 경우에도 서면으로 질문하고 회의석상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그렇게 진행은 할 수 있겠습니다.

○**유승우 위원** 저의 경우는 월요일 날 출발하거든요. 우리 문희상 대표님이랑 같이 어렵게 하는데 그 해외 일정을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또 우리 국회 차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위원장 김진표** 하여간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우 위원** 그 전에 서면 진술이 오면 모르지만……

○**위원장 김진표** 그러면 가능하면 그 전에 드리도록 하지요.

또 다른 의견……

○**김성곤 위원** 예.

○**위원장 김진표**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그런데 사실 5월 달에 이렇게 공청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로는 각당의 의견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표 위원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내년 지방선거에 관한 것은 반드시 6월 국회 때 결론을 내도록 하는 것이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대한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양당 의총을 거쳐서 양당 간에 합의가 되는 게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당 지도부에 5월 중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도록, 그리고 새누리당도 아마 좀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6월 말까지 이것을 하려면 소위 거쳐야죠, 운영위 거쳐야죠 또 의총, 여러 가지, 법사위 프로세스까지 하면…… 사실 이것 6월 전반기에는 저희 특위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특위도 특위입니다마는 양당 간에 그런 입장이 당 차원에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채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표**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 이채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우 위원님이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정이 안 된다면, 아쉽지만 불참하는 위원님들은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이 매우 지금 관심도가 높습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또 전국 기초의회 의장단 협의회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을 통해서 이번 공청회를 널리 알려져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배려와 또 초청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서 이날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개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제 방으로 전국 기초의원 협의회 의원들이 한 번 찾아와서 자기들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제가 그것을 박민식 위원장님께, 소위에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좀 연락을 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우 위원** 위원장님, 아까 김성곤 위원님이 6월 말까지는 다 됐으면 좋겠다고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관심사이고 민감한 문제가 많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졸속주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하긴 했는데 안 한 것만 더 못하게 욕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예상되는 문제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는 진지하게 해서 정말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국회에서 한다는 것이 결국은 우물쭈물하다가 저희들 생색내기용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소리가 만에 하나라도 들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아까 이채익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관련되는 단체들 또 연구기관들의 충분한 의견의 개진이 있고, 특히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고, 그러나 신중하면서도 일정을 타이트하게 해서 할 필요는 있지만 6월이다 딱 못을 박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표** 다들 위원님들이 그 점에 관하여는 같은 생각이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정당공천제가 되느냐 또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방법이 전혀 달라지니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오늘 아침 언론에도 여러 언론에 정당공천제 개선과 관련한 칼럼이 다양하게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우리 특위에서 공청회를 필두로 해서 소위 과정에서 활발히 토론을 하고 또 각 정당에서 의총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모든 문제들이 다 거론되고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공감대가 넓

은 그리고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을 어떻게 도출해 낼 것이냐 하는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고, 박민식 소위 위원장님도 아마 머릿속에 꼭 그것으로 가득 차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노근 위원** 정당공천제와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것이 공천 여부뿐만 아니라 소선거구제냐 중선거구제냐 이 문제하고 사실상 연계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진술인이든지 토론자들이 나올 때 그 개념까지 포함된 건지 단순히 공천 여부만 포함된 건지 이것을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쇄신위가 걱정이 되는 것은 논의만 화려하고 결실도 없이 용두사미로 지금껏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작년에 여기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을 비롯한 함진규 위원님 등이 참여했던 그 결과물들이 한 건이라도 빨리 진행되도록 될가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 뭐 정치쇄신위원들이라고 모이면 논의만 무성하고 결실 없는 것 이것 뭐합니까?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지탄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쉬운 것부터라도, 단 한 건이라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쇄신위원회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하여튼 잘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진표** 오늘 여야의 원내지도부가, 민주당 야당은 이미 선출을 했고 2시부터 새누리당도 원내지도부를 선출하니까 그렇게 되면 새 원내지도부와 저희 특위 양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치쇄신평위가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씻어 내고 신뢰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이니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논의만 무성하고 결론이 없는 그런 위원회가 안 되도록,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한 가지 한 가지 마무리 지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몇몇 분이 출장으로 인해서 일정이 안 맞는 부분은 가능하면 서면으로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라든지 기초의원 협의회 등과 같은 관련 있는 단체들에도 방청석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해서 시간은 5월 22일 오후 2시에 이 장소 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김성곤 위원** 아까 이노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하고 선거구, 예를 들어서 중선거구나 소선거구나 이것하고 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게 됩니까?

○**위원장 김진표** 지금 표제는 정당공천 개선 제도로 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를 해 보면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에는 선거구제하고 직결되는 문제들이 따라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거론돼 있는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예를 들면 여성에 관하여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것이냐, 여성명부제 선거제도를 도입할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논의도 선거구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결합해서 논의해야 할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술인에게도 주지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공청회 계획안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22일 오후 2시에 개최될 공청회 진행 상황은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꼭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관영	김상훈	김성곤	김진표
김태년	박민식	서용교	유승우
이노근	이채익	함진규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회관**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전문위원	임재주
입법심의회관	권영진